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중요성 분석을 통해 바라본 지속가능경영 이슈와 10년의 변화

최 윤 형*
이 기 호**
이 상 명***

지속가능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기업의 비재무적 공시 또한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기업의 ESG 경영 및 비재무적 성과로 상징하여 ESG 경영과 기업 가치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보고서 발행 자체가 기업의 미래 가치 및 투자자의 투자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지속가능경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경영 활동을 펼치는지 실천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과 2020년에 발행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중요성 분석을 통해 기업이 다루어야 하는 지속가능 핵심이슈를 분석하여 14개의 이슈로 재분류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경제, 사회, 환경, 지배구조의 이슈로 분류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생존을 위한 전략 수립과 동시에 당대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제 기업이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간소화시켜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경영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실무적인 기여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성 이슈 실증 연구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ESG,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 핵심이슈

1. 서론

본디 기업의 존재 목적은 매출 증대를 통해 이익을 도모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과정보다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 기업은 환경 파괴, 기업 윤리 부재 등 사회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기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기업이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활동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응은 기업 경영의 중심이 내부적 관리에서 외

부의 이해관계자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이론'(Freeman, 1984)은 지속가능경영 이론의 근간이 되는데, 주주와 종업원, 고객과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협력업체,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기업 운영에 대한 정당성 확보부터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현주 외, 2013). 따라서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의 상황을 기업 경영에 고려해야 하는 이해관계자자본주의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사실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는 미래 세대의 지

논문접수일: 2021. 08. 12. 1차 수정본 접수일: 2022. 01. 04. 게재확정일: 2022. 01. 10.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bigchoi@hanyang.ac.kr), 제1저자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박사통합과정(kiho3567@hanyang.ac.kr), 공동저자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sanglee@hanyang.ac.kr), 교신저자

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특히 환경의 중요성을 외쳤는데 이에 기업 또한 환경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발을 맞춰왔다. 그러나 2002년 UN 리우회의 이후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환경, 경제, 사회의 3대축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경영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10여년이 지난 후에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추가되어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범위가 확대되는 일련의 과정은 곧 환경 파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게 되면서 사회적 책임 및 투명한 지배구조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속가능경영의 외침은 분명하지만 지속가능경영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환경경영, 기업시민 등 비슷한 용어들이 난립하고 있어 혼동을 주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경영진마저도 지속가능경영의 전략적 방향이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경영이 더 이상 기업의 한 부분만이 아닌 전사적 차원에 대한 변화를 요

구하는 데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따라서 경영진의 철학이나 기업의 사업영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의 실천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ESG가 강조됨에 따라 무작정 다른 기업의 선례를 따르다보니 단순히 비용의 증가로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기업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속가능 관련 경영 이슈를 확인하고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있는 세부적인 이슈를 통합하여 지속가능경영의 모호함을 줄이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 분야를 제안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실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한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활용하여 보고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중요성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이슈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대부분 국제에서 통용되는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보고서 작성 전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해 경영 이슈를 먼저 살펴보는 ‘중요성 분석’을 하도록 요구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이슈가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총 108개

〈표 1〉 지속가능경영의 정의

| 연구자 및 기관명 | 정의 |
|-----------------------|---|
| UN 세계 환경 개발위원회(1987) | • 미래 세대의 필요와 능력을 저해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발전하는 것 |
| Elkington(1997) | •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환경적 건전성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경영활동 |
| EU(2002) | • 경영전략과 활동에 있어서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 |
| 세계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2002) | • 기업의 직원, 직원의 가족과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을 위한 삶의 질을 개선시키며, 이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을 위한 경영활동 |
| 환경부(2005) | •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리더십을 갖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통합된 전략과 경영활동 |
| 한국표준협회(2009) | • 기업 및 공공부문에 경제적 성장,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을 경영 활동에 고려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에 동화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하기 위한 경영의 실패리다임 |
| 한국생산성본부(2020) | •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 |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2010년 41개, 2020년 90개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총 1,157개 이슈가 기업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요성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는 이를 15개 이슈로 재분류하여 거버넌스, 환경, 경제, 사회 총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지속가능경영의 개념과 발전 과정

지속가능경영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되는 개념이며, CSR과 TBL의 개념을 일정 포함하여 발전해왔다(이민화, 2018). 먼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 가능한 정도를 뜻하는 말로 1972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란 보고서에서 언급한 이후 사용되었다. 이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개념화하여 정의한 것은 1987년 UN의 세계 환경 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발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이다. 지속가능성이 인간과 자연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추구하면서 기업 경영에도 사회적 책임(CSR)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학계와 사회에서 CSR과 지속가능발전이 혼재되어 사용되어왔다.

이후 경제적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환경적 건전성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개념인 TBL

(Triple Bottom Line)을 정의한 Elkington(1997)을 시작으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예를 들어, EU(2002)는 이해관계자에 집중하여 '기업의 경영전략과 활동에 있어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2002년 세계 지속가능 발전 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에서는 '기업의 직원, 직원의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을 위한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이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라 정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환경부(2005)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방면의 리더십, 투명성, 책임성을 갖고 TBL 관점에서 높은 성과를 이끌 수 있는 통합적 전략을 위한 경영활동'이라 정의하였다. 이렇듯 여러 지속가능경영의 정의를 살펴보면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이 Elkington(1997)이 제시한 TBL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TBL의 세 가지 중심 개념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이 지속가능경영에서 또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1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TBL)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TBL)은 경제적으로 생존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도록 조화로운 노력을 하는 상황으로 정의된다(Elkington, 1997; Van Marrewijk, 2003; 환경부, 2005). 먼저 경제적 차원은 기업의 사업운영이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경제적 차원이 기업의 수익창출과 생존을 통해 미래세대를 지원(Spangenberg, 2005)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가치창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적 차원은 기업의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유해 화학물질 저감활동과 더불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

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Goel, 2010). 환경적 차원을 설명하는 하위 요소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먼저 Pojasek(2012)은 환경 관리를 위해 자원의 전반적인 사용 절감, 환경오염 방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 생물 다양성 보호 등을 제시하였다. Savitz et al.(2007)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절감, 수질 정화, 소음공해 감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면, 수익성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은 노동과 인적자본 및 사회에 유익하고 공정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와 조직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로의 참여, 직원과 관계, 공정한 임금 등과 관련한 이슈를 다룬다(Goel, 2010). Pojasek(2012)은 사회적 차원에 대해 사회 복지를 위해서는 인권보호, 보건과 안전, 제품과 서비스, 소비자 이슈 평가와 지역사회 참여 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2.1.2 지속가능경영의 유사개념

기업이 기업 내부의 경제적 이익에 매몰된 경영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사회, 환경 등으로 확장하면서 이를 학술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개념들은 경제, 환경, 사회에 초점을 맞춘 만큼 지속가능경영과 유사하다. 대표적으로 기업시민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ESG를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기업시민이란 사회적 요구를 책임 있게 구체적으로 충족시키는 기업에 의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Maignann et al., 1999). 즉, 기업과 사회의 상호의존 또는 공생관계를 의미한다(OECD, 2001).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1996년도 연설인 ‘기

업시민정신과 사회적 책임’에서 언급되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후 비슷한 개념인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에 Carroll(1998)은 CSR 개념에 기업시민을 적용하여 기업시민정신이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요소로 ‘기업의 이윤창출, 법률 준수, 윤리적 행동, 자선적 기부’를 제시하였다.

둘째, 일찍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왔다(이정기 외, 2016). CSR의 정의는 기업이 사회와 상호 호혜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즉, CSR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와 환경보존에 기여하며 법을 준수하고 윤리적으로 경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시민’으로 정의된다(나영 외, 2019). OECD는 기업이 사회와의 공생 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비슷하게 EU는 기업이 스스로 사회, 경제적 문제를 기업 활동과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으로 통합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Carroll(1998)은 CSR을 네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 책임은 경제적 책임으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 즉 이윤극대화 또는 고용확대라 할 수 있다. 2단계 책임은 법적 책임으로 법률적 규제의 범위 안에서 경제적 사명을 성취하는 것, 즉 회계 투명성 또는 제품 안전이라 할 수 있다. 3단계 책임은 윤리적 책임으로 사회가 적절한 행동으로 규정한 도덕적 규율을 준수하는 것으로 환경 윤리경영, 고용다양성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4단계 책임은 자선적 책임으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소외계층 또는 교육, 문화에 대한 지원을 예로 들 수 있다. CSR 활동의 측정에 대한 움직임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해왔던 정부와 국제기구, 비영리 재단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CSR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임팩트 투자와 컨설팅 회사,

기업 이니셔티브 등이 측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정아름 외, 2020).

마지막으로, ESG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의미하며, 기업이 CSR 활동을 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지만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점(강원 외, 2020)을 개선하고자 투자자의 관점에서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라는 개념이 형성되었고, 특히 기업의 비재무적 위험을 정량화하기 위한 프레임이 제시되면서 친환경(Environmental), 사회 공헌(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 세 요소의 틀을 갖추어 ESG가 개발되었다(Bassen & Kovacs, 2008). ESG는 여러 국가에서 각 국에 적합한 세부적 지표를 설정하여 ESG 지표를 개발하고 기업들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지배구조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 및 증권사에서 ESG 지표를 개발하여 측정하고 있다(강원 외, 2020).

2.2 지속가능경영 지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지표와 평가모형은 여러 국제기관과 투자사 등이 개발해오고 있다. 특히 기업 이외에도 정부, 단체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들 수 있다. SDGs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목적으로 제기된 개념으로 17가지 분야의 인류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이루어야할 목표를 설정하며 169개 세부목표와 232개 세부지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 환경, 사회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사람(People), 지구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을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제사회 차원 통합적 개발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5P원칙이라고도 한다(권율, 2019). 이를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SDGs가 제시

하는 지속가능성의 내용을 지속가능경영에 담고 있다.

UN Global Compact(UNGC)는 현재 10대 원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위한 행동 플랫폼을 개발하여 기업,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의 협업을 수행하고 있다(윤경수, 2020). 10대 원칙 중 UNGC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인권으로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결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Freeman, 2010). 따라서 이후 ISO 26000에서도 인권을 다시 강조하며 인권을 설명하는 다섯 가지 특성을 제시하였다. 원칙 3, 4, 5, 6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의 '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과 관련된 원칙 7, 8, 9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선언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뿌리로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칙 10은 반부패 이슈에 관한 것이며 미국의 해외부패행법, OECD 뇌물방지협약, 그리고 유엔 반부패협약 등에서 논의되었다.

ISO 26000은 7개 핵심주제를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중심으로 선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지배구조,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개념은 상호 보완적이다. ISO 26000을 구성하는 요소와 주제를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지속가능경영과 연관성이 있으며 UNGC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UNGC와 ISO 26000은 목적의 방향이 서로 같으나, UNGC의 경우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권고사항인 반면, ISO 26000의 경우, 대상도 기업 뿐 아니라 정부, 사회단체 등으로 확장되며 국제표준이라는 차이가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 UNGC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 있어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가치창출에 관한 항목을 삽입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것이 기업이 의사결정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노용휘 외, 2021).

한편, DJSI는 기업을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세 개의 큰 기준으로 평가하여 부합하는 기업들을 리스트에 편입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관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이다. 실제로 DJSI World, DJSI Asia-Pacific, DJSI Korea 등 세 개의 지수에 국내 지속가능경영분야 선두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세 가지 축에는 경제적 측면의 경우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윤리강령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적 측면에는 환경보고서, 사회적 측면에는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보유, 노동지표와 기업시민의식, 사회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하위 항목별 가중치가 다르고 평가 기준과 가중치는 매년 일정부분이 갱신된다(이해성·김갑순, 2015).

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가이드라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내의 경우, 2003년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SDI에서 최초 발간되었다. 이후 2010년 92건, 2015년 136건 등 증가추세에 있으나 2015년 기준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현황을 보면 58곳에 불과하다(조선일보, 2017). 현대차그룹, KB금융, KT 등 약 40개 기업은 매년 꾸준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금호석유화학, 효성과 같이 비정기적으로 발간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기업도 존재한다. 또한 오투기처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아닌 환경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LG전자처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환경보고서를 따로 발간하는 기업도 존재한다. 이처럼 기업마다 발간 상황이 상이하며 발간 시 반드시 GRI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해외 시장에서의 정당성 획득을 위해 다국적기업의 경우 보통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간하고 있다. UN 산하기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이 가장 표준적이라는 점에서 보고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Schaltegger

et al., 2006; Burritt & Schaltegger, 2010; 이주현, 2017). 1999년 첫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이후 4번의 수정을 거쳐 2016년에 제정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가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GRI Standards의 큰 특징은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기업 이외 조직도 적용할 수 있게끔 모듈형으로 재구성되었다는 것이다. GRI 101, 102, 103은 보편적 기준으로 GRI 101은 보고서 원칙 등의 내용을, GRI 102는 일반적인 공시 내용을, GRI 103은 경영방식의 보고방법을 담을 것을 요구한다. GRI 200, 300, 400은 주제별 기준으로 GRI 200은 경제, GRI 300은 환경, GRI 400은 사회 주제를 담고 있으며 각 주제에 맞는 경영 이슈와 성과를 각 파트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관한 연구 현황

지속가능성이 기업 경영에 들어와 ESG 경영을 기업 경영의 화두로 제시하면서 비재무적 성과와 가치를 측정하려는 기업이 많아졌다. 실제로 SK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DBL(Double Bottom Line) 추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 활동이나 환경 오염 개선 노력과 같은 활동은 정성적 가치로써 계량화가 어려워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경영철학이 단순히 선전(Propaganda)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SK는 2017년부터 측정 체계 개발에 들어가 2019년부터는 전 계열사에 걸쳐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실적과 같이 외부 공시를 해오고 있다.

비재무적 공시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경영계의 관심은 학계에서도 관심을 불러 일으켜 비재무적 공시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해외연구를 살펴보면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애널리스트의 예측 오류가 낮고 특히 재무정보공개가 투명하지 않

은 국가에 있는 기업일수록 ESG 보고서가 기업 회계 정보의 보완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haliwal et al., 2012). Luo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ESG 실적의 대리변수로 보고서 발간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 KLD 스코어를 측정하여 애널리스트의 주식 추천 및 주가초과수익률간의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ESG 보고서 발행 여부와 시장 가치 간 긍정적 관계가 토론토 상장기업(Berthelot et al., 2012)과 싱가포르 상장 기업(Loh et al., 2017)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국내 연구 또한 해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행하는 국내 기업의 기업 가치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e.g., 김강, 2012; 김인수·정범석, 2015; 권한섭·박종원, 2016; 변혜영, 2018; 지상현, 2019; 마희영·김은혜, 2020). 마희영·김은혜(2020)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행, 반복발행, 평가 결과가 기업의 가치관련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변혜영(2018) 또한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공개하는 기업일수록 단기 위험은 낮고 장기 기업 가치는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김인수·정범석(2015)은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과 발간하지 않은 기업 사이에 수출비중, ROE, ROA, 기업규모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발간 여부를 기업의 ESG 실적의 대리변수로 이용한 연구들 또한 기업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로 측정한 기업의 가치는 단기수익성, 단기성장성, 장기 기업 가치(김강, 2012), 재정적 발생액 등의 회계정보의 질(권한섭·박종원, 2016), 회계보수주의 수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이익유연화 수준 등의 회계이익의 질(지상현, 2019) 등으로 측정되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같이 비재무적 성과의 독립

적인 공시 외에도 비재무적 보고를 재무적 공시에 포함하여 통합보고서를 발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가령,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10년부터 상장사의 통합 보고서 발행을 의무화함에 따라 Lee & Yeo (2016)는 남아공 시장 내 상장 기업의 통합 보고서와 토빈Q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관찰하였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모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효과성 및 유용성을 살펴보는 목적으로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과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을 빌려 상반되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가령,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이 최근 의무화 추세에 있으나 대개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한 기업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지상현, 2019; Loh et al., 2017). 반면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의 목적이 단순히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한 것이라면 비재무적 성과 및 공시를 위한 과도한 비용이 지출될 여지가 있다(Barnea & Rubin, 2010). 게다가 이러한 양상은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진수, 2009; 오원정·권해숙, 2014).

2.5 지속가능경영 이슈 연구의 필요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이 가속화되면서 비재무적 공시로서 보고서 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기업의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연구가 되어왔다. 정성적 가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비재무적 성과를 보고서 발행을 통해 기업 가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의 학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지속가능경영과 이를 공시하는 보고서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 지속가능경영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

지 못하다. ESG 경영이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지만 상장사 중에서도 여전히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는 기업이 많고 중소기업은 이를 경영의 부담으로 느끼며 피상적인 활동만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기업이 직면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파악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중요성 분석에 제시되어 있는 경영 이슈를 통해 실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와 해당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핵심이슈를 간추려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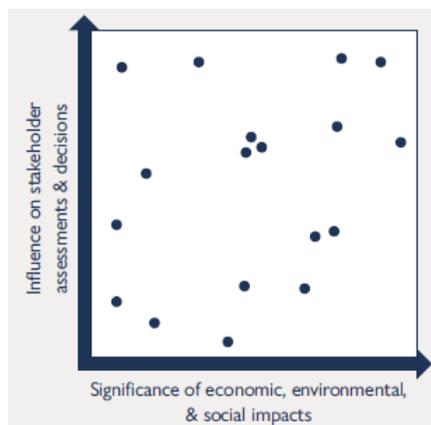
물론, 개별 기업의 상황과 기업이 속한 산업의 상황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이슈가 다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제조업은 공장 탄소 배출 이슈로 인해 환경 분야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지만 식품, 화장품과 같이 B2C 제조업은 탄소 배출과 더불어 제품의 안전과 고객의 건강 등의 이슈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산업별 이슈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도 있으나 지속가능성 이슈에 관한 초기 연구로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핵심 이슈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2010년과 2020년의 핵심이슈를 비교하여 10년 사이의 변화를 같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실제 지속가능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핵심 이슈 또한 보다 복잡해지고 세부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모호하고 복잡한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간소화시켜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구체화시키거나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에게 가이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선도 기업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에 의미하는 바를 핵심이슈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I. 분석방법

3.1 중요성 분석

‘GRI 101: 기초’ 파트를 살펴보면 중요성(Materiality) 목록에 보고서가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GRI 가이드라인 자체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이용할 시 반드시 중요성 분석을 거친 다음 도출되는 핵심이슈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성 평가에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를 거쳐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도출해내게 된다. 이 과정은 먼저 이슈 Pool 구성을 위해 동종기업 벤치마크, 미디어 조사, VOC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모아 이 중에서 핵심이슈를 선정하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그 다음, 최고경영진 회람 및 중요성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최종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이러한 이슈에 관한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당해 연도 보고서에 기술하게 된다. 보통의 경우, 일반



〈그림 1〉 중요성 평가 매트릭스

이슈를 수집한 과정을 보고하고 중요성 매트릭스를 통해 도출된 핵심이슈를 보고하는 수준에서 기록이 되지만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보고를 위해 각 이해관계자의 인터뷰나 평가 내용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기업도 존재한다.

3.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RI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가 제공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DB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GRI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기업은 제외하였다. 해당 DB는 조직명, 보고기간, 발행연도, 업종, 활용기준, 보고서명을 모은 것으로 사기업과 공기업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수는 총 108개로 각 2010년 41개, 2020년 90개였으며 2개 연도 모

두 발간한 기업은 23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산업(대분류)의 수는 2010년 6개, 2020년 10개로 나타났으며 산업(중분류)의 수는 2010년 35개, 2020년 64개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은 2020년 데이터에만 존재하였다. 표본을 통해 수집된 핵심이슈는 총 1,157개였으며 구체적으로 2010년과 2020년 각각 402개와 755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GRI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중요성 평가를 통해 핵심이슈를 살펴보고 있으나 최근의 보고 기준인 GRI Standards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철저히 분류하지 않았다. 이는 중요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핵심이슈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해서 GRI Standards의 모듈에 정확하게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이슈는 일반적으로 환경 분야로

〈표 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 분류 | No | 재분류된 핵심이슈 | 합계 대비 이슈의 비중%(개수) | | |
|------|----|-----------------------|-------------------|------------|-------|
| | | | 2010년 | 2020년 | 합계 |
| 경제 | 1 | 경영혁신전략 | 1.99(8) | 1.32(10) | 18 |
| 경제 | 2 | 경제적 성과 창출 | 3.48(14) | 4.50(34) | 48 |
| 경제 | 3 | 글로벌 경쟁력, 기업 이미지 관리 | 1.99(8) | 1.85(14) | 22 |
| 경제 | 4 | 기술혁신, 품질향상, 신사업, 신제품 | 7.71(31) | 13.77(104) | 135 |
| 경제 | 5 | 리더십, 리스크 관리 | 4.23(17) | 1.72(13) | 30 |
| 사회 | 6 | 사회공헌 | 10.45(42) | 7.68(58) | 100 |
| 사회 | 7 | 이해관계자 참여, 소통 | 1.99(8) | 0.93(7) | 15 |
| 사회 | 8 | 전사적 지속가능경영, ESG관리 | 4.73(19) | 1.72(13) | 32 |
| 사회 | 9 | 고객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안전, 만족 | 11.94(48) | 11.26(85) | 133 |
| 사회 | 10 | 인적자원관리 | 15.67(63) | 22.25(168) | 231 |
| 사회 | 11 | 공정거래, 공급망 관리 | 7.21(29) | 5.17(39) | 68 |
| 환경 | 12 | 환경경영, 기후변화대응 | 21.14(85) | 18.81(142) | 227 |
| 거버넌스 | 13 | 준법, 윤리경영, 반부패 | 3.23(13) | 6.89(52) | 65 |
| 거버넌스 | 14 | 투명한 지배구조, 정보공시 | 4.23(17) | 2.12(16) | 33 |
| 총합계 | | | 100(402) | 100(755) | 1,157 |

분류하지만 GRI Standards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 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로 보고 경제 분야로 분류하기도 한다. 게다가 '리스크 관리' 및 '규제 대응'이라는 핵심이슈는 GRI Standards에 따르면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모듈이 없으며 사실상 리스크와 규제의 내용에 따라 사회,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다. 또한 '고객만족', '고객중심경영' 등의 이슈도 여러 주제에 걸쳐 있거나 각 기업이 생각하는 고객만족의 의미가 상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가 어렵다. 가령, '고객만족을 통한 매출 신장' 이슈는 경제 분야로 분류되지만 '고객의 안전과 건강, 보전에 초점을 맞춘 고객만족' 이슈는 사회 분야로 분류된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고객만족강화' 이슈를 거버넌스와 사회 이슈로 나누어 보고하였다. 또 다른 예로, LG생활건강은 '유해물질의 취급과 관리 강화' 이슈를 환경이 아니라 고객 안전보건 주제로 보고하여 사회 분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모호한 이슈의 경우 하나의 특정 분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보고서에 적힌 글자 그대로의 표현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 후 해당 이슈가 보고되어 있는 챕터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루어졌다.

IV. 분석결과

4.1 지속가능경영 14개 이슈

본 연구는 2010년과 2020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요성 이슈에 보고되어 있는 1,157개의 핵심이슈를 모아 14개 이슈로 재분류하였다. 먼저, '사회공헌', '사회공헌 사업', '사회공헌 활동 및 성과' 등과 같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슈를 하나로 통일시켰다. 다음, 보편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 이슈들을

하나로 통일시켰다. 가령, '더불어 행복한 사회추구', '지역사회공헌' 등을 '사회공헌'이라는 하나의 이슈로 통합시켰다. 마지막으로 특정 산업 관련 이슈를 보편적인 이슈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금융 접근성 향상'이나 '디지털 격차 해소'는 각각 금융업과 IT/통신업에서 실시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목적을 의미하므로 모두 '사회공헌'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류한 14가지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 (1) 경영혁신전략, (2) 경제적 성과 창출, (3) 글로벌 경쟁력, 기업 이미지 관리, (4) 기술혁신, 품질향상, 신사업, 신제품, (5) 리더십, 리스크 관리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경영혁신전략의 경우, 업무 프로세스 혁신, 마케팅 및 영업 혁신, 혁신경영 등 사업부별 혁신이나 전사적 차원의 경영혁신을 의미하는 이슈가 있었다. (2) 경제적 성과 창출의 경우, 경영실적 극대화, 안정적 이익 창출, 재무적 안정성 강화 등으로 나뉘었다. (3) 글로벌 경쟁력, 기업 이미지 관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이 포함되었다. (4) 기술혁신, 품질향상, 신사업, 신제품은 기술 경쟁력 확보, R&D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제품서비스 혁신, 품질관리 등 연구개발 및 사업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5) 리더십, 리스크 관리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재무 및 비재무 통합 리스크 관리 등 전사적 차원의 관리 방식을 요구하는 이슈들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사회 분야는 (6) 사회공헌, (7) 이해관계자 참여, 소통, (8) 전사적 지속가능경영, ESG관리, (9) 고객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안전, 만족, (10) 인적자원관리, (11) 공정거래, 공급망 관리 이슈로 분류하였다. 먼저, (6) 사회공헌은 사회공헌 활동 및 성과, 사회책임투자 확대,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으로 나뉜다. (7) 이해관계자 참여, 소통 이슈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향상, 이해관계

자와의 적극적 의사소통 등 기업 경영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참여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8) 전사적 지속가능경영, ESG관리는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구축, ESG 평가와 공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9) 고객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안전, 만족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고객 및 제품 안전, 고객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고객만족 경영 등 고객 관점의 혜택 내용이 담겨있는 이슈들이 포함되었다. (10) 인적자원관리는 인재선발 및 육성, 고용안정성, 공평한 보상, 복지, 노사관계, 인권, 안전보건, 다양성, 조직문화로 나뉘어 있다. (11) 공정거래, 공급망 관리 이슈는 상생협력,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협력사 동반성장 등 같은 목적의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와 거버넌스 분야는 각각 (12) 환경경영, 기후변화대응, (13) 준법, 윤리경영, 반부패, 그리고 (14) 투명한 지배구조, 정보공시 이슈로 나뉜다. (12) 환경경영은 기후변화 대응, 녹색경영, 사업장 환경영향 저감, 생물다양성 보호, 에너지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자원 선순환, 친환경 제품 개발 확대, 폐기물 감축, 환경경영, 환경법규 준수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하나의 핵심 이슈로 재분류하였다. (13) 준법, 윤리경영, 반부패는 윤리경영 강화, 반부패 강화, 준법경영 강화 등의 이슈로 부패행위 근절에 대한 구체적인 준칙 및 환경 조성에 대한 이슈들로 구성되어 있다. (14) 투명한 지배구조, 정보공시 이슈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투명한 정보공개 강화 등으로 나뉜다.

4.2 연도별 중요 핵심이슈

각 연도별 최대 비중을 차지한 핵심이슈는 2010년 '환경경영, 기후변화대응' 이슈와 2020년 '인적자원관리' 이슈이다. 2010년과 2020년에 각각 21.14%와 22.25%를 차지하였다. 먼저 2010년의 경우, 본 연구가 기후변화대응과 세부적으로 다양한 환경경영

의 분야를 하나의 이슈로 모은 데에 기인하지만 환경경영은 필연적으로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가령, '에너지 절감' 이슈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이슈가 포함되기 마련이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자원의 선순환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은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슈로 연결되며 결국 '환경법규 준수' 이슈와도 이어진다. 2020년에는 18.81%로 '인적자원관리' 이슈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트럼프 美 대통령이 재임한 기간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면서 오히려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국제적으로 저탄소, 탈석탄 운동이 벌어지면서 여러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기업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각국이 내연기관의 판매 중지를 공식화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이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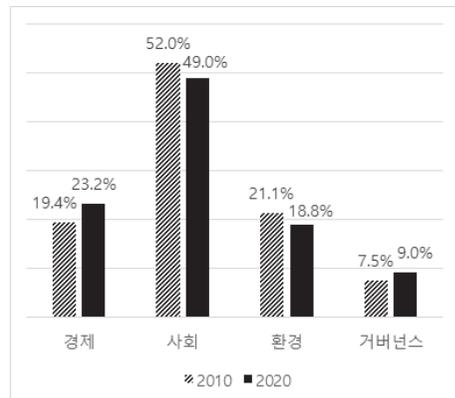
2020년의 경우, '인적자원관리'가 최대 이슈인데 이 또한 본 연구에서 인적자원관리에 여러 이슈를 포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이슈를 살펴보면 크게 인재선발 및 육성, 고용안정성, 공평한 보상, 복지, 노사관계, 인권, 안전보건, 다양성, 조직문화 정도로 나뉘어 있다. 모두 인적자원관리에 따른 것이며 특히 산업 재해 이슈와 맞물려 공평한 보상과 안전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권과 다양성은 과거에 사회에서 다소 주목받지 못했던 이슈로 최근 미투 운동과 성평등 사회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안전보건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것이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령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및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 책임 강화, 건설업 및 위험 기계·기구 안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산업안전과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련 조치의 심화된 의무 부과와 기존에는 배제되었던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와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생겨났다. 이외에도 사망사고에 대해 도급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등 안전보건에 관련된 법 개정으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이슈의 중요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젊은 임원의 등장과 소위 MZ 세대로 불리는 90년대 생 신입 사원이 주도하는 조직 문화 변화와 세대 간 갈등 역시 '인적자원관리'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IMF 전후의 경제적 격변기를 피부로 겪은 기성세대와 IMF를 몸소 겪지는 않았지만 의무교육과정부터 대학졸업 이후 입사까지 심한 경쟁을 겪으며 성장해온 밀레니얼 세대 간의 가치관과 성격, 회사를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 등으로부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경우 개인보다 조직, 성과와 승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조직보다 개인, 개인적 성취감, 동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세대교체로 인해 조직 내 밀레니얼 세대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적자원관리 시 고려해야할 필수적 이슈가 된 것이다.

4.3 지속가능경영 10년의 변화

최종 분류 결과 정리된 14개의 이슈는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분야별로 각각 5개, 6개, 1개, 2개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핵심이슈의 비중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사회 분야는 조직 내 인적자원관리,

사회공헌, 공정거래 및 공급망 관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두 해 연도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경제와 거버넌스 분야의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기업의 존폐 즉,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ESG 경영이 강조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림 2>에서 보듯,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증가했는데, 이는 재벌의 취약한 지배구조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 증대로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경제 분야의 중요성 증가는 기업이 스마트 공장, AI, 디지털 혁신, 기후변화와 같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의 위기 속에서 시대적 과제 해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분야별 핵심이슈 비중

<표 2>에 나와 있듯이, 분야별 비중 변화를 14개 핵심이슈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당해 전체 핵심이슈 중 2010년보다 2020년에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은 경제적 성과 창출(2), 기술혁신(4), 인적자원관리(10), 윤리경영(13) 이슈로 나타났다. 앞서 언

급했듯이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기업의 안정적 성과 창출은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이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기술발전과 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쟁 기업의 등장이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사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인적자원관리 이슈의 비중 증가는 고용 둔화, 고용안정성 우려,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직원 복지, 인재 육성 등 우리 사회에 부각했던 포용과 인권, 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준법, 윤리경영, 반부패 이슈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부딪혀온 재벌가의 오너 리스크, 주가 조작, 부패 리스크 등에서 비롯된 관심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우수사례

4.4.1 S-Oil

S-OIL 주식회사는 국내 정유회사이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또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정 ESG 우수기업



〈그림 3〉 S-OIL의 중대성 매트릭스 (S-OIL 지속가능성보고서, 2019)

을 꾸준히 수상하고 있다. 연구의 시점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상 2회, 최우수기업 선정 4회, 우수기업 선정 2회를 기록했다. ESG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정유 산업에 속한 회사이지만 장기간 꾸준히 높은 ESG 평가 성적을 달성하고 있다.

S-OIL은 사업적 특징과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중대성 평가항목을 선정함에 있어, C·E·O(Customer·Employees·Owners & Other Stakeholders) 등 세 관점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

〈표 3〉 S-OIL 선정 핵심 이슈

| 구분 | 핵심 이슈 | | 주요 이해관계자 |
|----|-------|---------------|-----------------------------|
| E | 1-1 | 인재관리 | 임직원 |
| | 1-2 | 공정한 평가 및 보상 | |
| | 2 | 인재육성 | |
| | 4 | 산업안전보건 관리 |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정부 |
| O | 5-1 | 환경관리 시스템 강화 |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 |
| | 5-2 | 오염물질 관리 | |
| | 5-3 |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리 | |
| | 6 |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 고객, 주주, 투자자, 협력회사, 지역사회, 정부 |
| | 7 | 사회공헌활동 |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 |

자료: S-OIL 지속가능성보고서, 2019

다. 핵심 이슈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오염물질 관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리,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환경관리 시스템 강화 등 환경적 요인(이상 O 관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리, 인재육성, 공정한 평가 및 보상, 인재관리 등 기업 내부 임직원에게 대한 평가와 보상에 관한 요인(이상 E 관점)이 선정되었다.

S-OIL은 ESG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내부 의견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중대성 매트릭스를 구성했다. 정유회사의 특성상 ESG의 각 항목 중 'E'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핵심 이슈가 오염물질, 환경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근무환경, 인재관리 등의 이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관리 및 육성, 산업안전보건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효과적인 인재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교육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직원이 원하고 필요한 외국어와 기술과 관련된 강의, 교재를 공급하고 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습득한 지식을 직원끼리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Flipped Learning 방식을 도입해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려 노력했다. 강화된 산업안전법 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감사, 작업허가감사 등을 실시하여 보완 및 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를 신속히 확인 및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긴급통합대응체계(Emergency Control Program: ECP)를 마련하고 직접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누유, 화재, 정전, 지진, 해일 등 대규모 재난 상황과 관련한 훈련을 연 24회 이상 시행하고 있다. 환경적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법규관리전산 시스템(Legal Compliance System: LCS)를 구축하여 환경법규 개정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 및 공유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규 기준치보다 엄격한 사내 기준을 설정하여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일러 연료를 LNG로 교체하고 공정 처리 전 과정에서 유해대기 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질자동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기관에 실시간으로 수질 데이터를 전송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S-OIL의 경우, 기업이 속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함으로써 다년간 ESG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4.4.2 신한금융지주



〈그림 4〉 신한금융지주의 중대성 매트릭스
(신한금융그룹 사회책임보고서, 2019)

신한금융지주는 국내 금융그룹이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상 2회, 우수기업 선정 4회를 기록했다. 금융기업의 경우 일반 제조업과 달리 환경(E) 부분에서의 이슈가 두드러지기 어렵고, 지주회사의 특성상 지배구조와 이사회 현황에 대해 이슈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저탄소 녹색산업 대상 대출 및 투자를 통한 환경목표 수

〈표 4〉 신한금융지주 선정 핵심 이슈

| 2020 CSR 전략 | 핵심이슈 | 성과 지표 |
|-----------------|--------------------|-----------------|
| 고객가치 제고 솔루션 제공 | 1 디지털 혁신 | 디지털 금융 가입율 |
|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 2 윤리경영과 컴플라이언스 | 윤리교육이수 / 서약율 |
| 금융 포용성 제고 | 3 포용금융 | 서민금융지원 |
| | 4 혁신성장 지원 | 창업생태계지원 |
|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 5 인적자원개발 | 1인당 연평균 교육 시간 |
|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 6 지속가능금융 | 친환경 금융지원 |
| 환경 / 사회적 리스크 관리 | 7 기후변화대응 | 온실가스 배출량 |
| | 8 ESG 및 중장기 리스크 관리 | ESG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자료: 신한금융그룹 사회책임보고서, 2019

립 및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실제로 GRI Standards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Materiality와 AccountAbility AA1000SES에서 개발된 Five Part Materiality Test 방법론을 기반으로 기업과 고객, 사회적 관점에서 핵심이슈를 선별하여 이에 따른 전략이 구축, 시행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기타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려 전국 영업점의 노후 보일러를 교체, 친환경 데이터센터 운영, 냉난방 온도 준수 등의 노력과 친환경차량을 도입하여 업무용으로 전기차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했다. 금융기업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자산운용 시 ESG 투자원칙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투자 대상 기업의 경제적 활동과 지배구조, 환경 및 사회활동 등을 고려해 투자를 진행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 지원, ESG관련 투자 확대, ESG 기반의 펀드 운용을 확대하는 등 간접적으로도 ESG 항목 중 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사회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 시설과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는 플랫폼인 신한두드림스페이스(Do Dream Space)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이외에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른 상품 대비 높은

금리로 이루어진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변경과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윤리경영과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준법감시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금융법규, 자금세탁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Compliance Letter를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특히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위험평가 체계를 도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 투자자산을 Dash Board를 통해 관리하는 그룹 차원의 고객 투자자산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ve System)을 강화하여 실시간으로 해외 로밍정보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의 피해를 입을 징후가 있는 고객을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자체 개발 및 도입함으로써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고객을 보호하고자 노력을 기했다. 금융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기업 운영에 대한 메카니즘과 이해관계자의 니즈, 투자자의 관점이 다른데, 신한금융지주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이 ESG 관점에서 해야 하는 전략을 적절히 선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제언

5.1 지속가능경영 이슈 탐색의 시사점

2010년과 2020년에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보고서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만큼 실제 경영활동과 기업이 맞닥트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년 동안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도 증가했지만 그만큼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경영 이슈 또한 다양해졌다. 본 연구는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갖고 실제로 기업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범위에 걸쳐있는 수많은 이슈를 분석하여 지속가능경영이 지닌 애매모호함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크게 네 가지 시사점을 기대한다.

첫째,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인 TBL의 경제, 사회, 환경적 차원과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계속기업으로서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지속가능경영의 이슈로 다루면서 단순히 착한 기업으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밀접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 기업들의 10년간 지속가능경영 현황으로 미루어 보아 크게 총 14개 정도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14개 이슈 모두 보편적이며 흔한 경영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의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들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경영을 모르거나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지속가능경영이 비용이 아니며 이미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보다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점검하고 보완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도록 하여 지속가능경영의 도입을 앞당기는 근거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구조와 이슈의 내용 및 유형은 비슷했다. 아직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평가에 대한 명시된 기준과 프레임워크가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서로 '모범적 지속가능경영보고서'라고 판단되는 기업의 틀과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의 차원에서 봤을 때 차별적인 틀과 구조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기업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보고서 작성 시 시장 요구에 따른 수동적인 보고가 아닌 기업의 진심 어린 성실한 보고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에 문외한인 기업에게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하고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활동, 보고서 발간의 측면에서 실무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듯, 속한 산업적 특성에 따라 ESG 항목 중 어떠한 항목에 대해 불가피한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철강 산업과 발전 산업,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환경(E) 항목에 대해 낮은 평가와 여러 지적이 있을 위험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 즉, 어떤 기업도 ESG 항목 중 불가피하게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ESG 활동을 다채롭게 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향후 이익을 도모하려해도 고유의 창출가치가 특성상 두드러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금융기업의 경우, 일반 제조업과 같이 탄소배출이 많지 않아 환경적인 측면의 활동을 도출해 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S-OIL과 신한금융지주의 사례를 보면, 정유 산업에 속해 ESG 환경적 측면의 위험이 기본적으로 높지만, 이 부분을 타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역사회와 정부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한

결과로 여러 해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좋은 등급을 평가받을 수 있었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일반 제조업처럼 탄소, 온실가스, 폐기물 배출에 관해 이슈가 많지 않지만 금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 창출의 노력과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금융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좋은 ESG 등급을 평가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슈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해당되는 이슈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우가 있었다.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국내 여러 유수의 기관이 평가 프레임워크와 기준을 수립 중이다. 지속가능성의 평가를 위해 여러 지표가 활용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이 기간 안에 행한 여러 비재무적 활동을 보고하기 위한 유용한 채널이기 때문에 필히 활용될 것이다. 평가지표의 수립에 선행하여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출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분류의 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류의 틀이 없다면, 좋은 평가를 위한 '분석'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속가능경영의 정착을 위해 여러 기준을 개발 중인 관련 기관은 이러한 점을 참고할 수 있다.

5.2 향후 연구방향 제언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1,157개의 이슈를 정리하고 분류하는데 있어 연구자의 자의적인 기준이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핵심이슈를 나타낸 표현의 뉘앙스와 보고서 내 해당 내용이 담긴 챕터를 살펴봄으로써 각 이슈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였지만 연구자의 주관이 완벽하게 배제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기업에 특화된 핵심이슈나 여러 분야로 세분화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이슈를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즉, 이슈별, 산업별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보고서를 격년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을 고려했을 때 2010년과 2020년 이외에 다른 시점의 보고서를 모두 분석에 이용한다면 보다 총체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보고서의 중요성 분석에서 핵심이슈만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GRI 가이드라인이 보고서에 다뤄야 하는 핵심 이슈의 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분히 기업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핵심이슈가 결정된다. 물론, 각 이슈의 중요성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핵심이슈를 도출해내지만 그 과정이 기업마다 상이하며 도출해내는 개수 또한 주관부서나 보고서 발행을 위한 프로젝트 팀의 주관에 개입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일반이슈까지 포함한 모든 이슈를 분석에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모든 이해관계자 관점을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10년 동안의 이슈 비중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0년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2020년에는 국내외 어떤 사건이나 계기로 인해 특정 이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속가능경영의 흐름을 예측을 위해서라면 일반 이슈까지 포함한 분석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DB만을 활용했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적 특성으로 인해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다수였다. 하지만 지속가능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보고서를 발행해 기업 홈페이지에만 공개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는 중견·중소기업인 경우가 많다. 대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주로 활용해 핵심이슈를 분류한 결과는 <그림 2>이지만 중견·중소기업의 DB를 추가로 활용한다면 다른 시사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견·중소기업의 인식이 제고되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접근성과 출간이 편리해진다면, 향후 국내의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연구가 빠르게 확장될 것이다.

REFERENCES

- Bassen, A., and A. M. M. Kovacs(2008),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key performance indicators from a capital market perspectiv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und Unternehmensethik*, 9(2), 182-192.
- Berthelot, S., M. Coulmont, and V. Serret(2012), "Do investors value sustainability reports? A Canadian stud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19(6), 355-363.
- Brown-Liburd, H. and V. L. Zamora(2015), "The rol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ssurance in investors' judgments when managerial pay is explicitly tied to CSR performance,"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4(1), 75-96.
- Burritt, R. L., and S. Schaltegger(2010), "Sustainability accounting and reporting: fad or trend?,"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 Carroll, A. B.(1998), "The four faces of corporate citizenship," *Business and Society Review*, 100(1), 1-7.
- Chen, L., B. Srinidhi, A. Tsang., and W. Yu(2016), "Audited financial reporting and voluntary disclosur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reports,"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28(2), 53-76.
- Cheng, M. M., W. J. Green, and J. C. W. Ko(2015), "The impact of strategic relevance and assurance of sustainability indicators on investors' decision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4(1), 131-162.
- Dhaliwal, D. S., O. Z. Li, A. Tsang, and Y. G. Yang (2011), "Voluntary nonfinancial disclosure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The initi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6(1), 59-100.
- Dhaliwal, D. S., S. Radhakrishnan., A. Tsang, and Y. G. Yang(2012), "Nonfinancial disclosure and analyst forecast accuracy: International evidenc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isclosure," *The Accounting Review*, 87(3), 723-759.
- Elkington, J.(1997), "Can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Oxford : Capstone*
- EU(2002). <http://europa.eu/>
- Freeman, R. E.(1984),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Freeman, R. E.(2010),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cía-Sánchez, I. M., N. Hussain, J. Martínez-Ferrero, and E. Ruiz-Barbadillo(2019), "Impact of disclosure and assurance quality of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s on access to fina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26(4), 832-848.
- Goel, P.(2010), "Triple Bottom Line Reporting: An Analytical Approach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Journal of Finance, Accounting & Management*, 1(1), 27-42.
- Herzig, C., and S. Schaltegger(2006),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 overview,"

- Sustainability Accounting and Reporting*, 301-324.
- Loh, L., T. Thomas, and Y. Wang(2017),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firm value: Evidence from Singapore-listed companies," *Sustainability*, 9(11), 2112.
- Luo, X., H. Wang, S. Raithel, and Q. Zheng(2015),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alyst stock recommendations, and firm future retur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6(1), 123-136.
- Maignan, I., O. Ferrell, and G. Hult(1999), "Corporate Citizenship: Cultural Antecedents and Business Benefits,"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7(4).
- OECD, "Corporate Responsibility: Frequently Asked Questions," (www.oecd.org), 2001.
- Pojasek, R. B.(2007), "A framework for business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Quality Management*, 17(2), 81-88.
- Pojasek, R. B.(2012), "Understanding sustainability: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Environmental Quality Management*, 21(3), 93-100.
- Savitz, A. W., and K. Weber(2007), "The sustainability sweet spot," *Environmental Quality Management*, 17(2), 17-28.
- Spangenberg, J. H.(2005), "Economic sustainability of the economy: concepts and indic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8(1-2), 47-64.
- VanMarrewijk, M.(2003), "Concepts and definitions of CSR and corporate sustainability: Between agency and commun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44(2-3), 95-105.
- WBCSD(2002),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ing: Striking The Balance."
- WCED(1987), "Our common future, A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 국내참고문헌**
- S-OIL(2019), "지속가능성보고서"
- 강원, 정무권(2020), "비재무지표와 기업의 시장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ESG 지표 개발에 사용되는 사건의 시장반응 분석," **연세경영연구**, 57(2), 1-22.
- 권율(2019),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추진과제: K-SDGs 수립과정과 추진체제 개선을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12(1), 99-131.
- 김강(2012), "지속가능경영이 장단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정책연구**, 17(4), 95-118.
- 김인수, 정범석(2015),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실무학회지**, 1(2), 29-44.
- 김현주, 이기엽, 김희천(2013), "경영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자 경영의 진화," **Korea Business Review**, 17(2), 245-292.
- 나영, 이동하(2019), "코스피 속성과 경영자 상황적 요인에 따른 기업의 외면윤리와 내면윤리 간의 관련성," **Korea Business Review**, 23(2), 171-208.
- 노용휘, 강승모(2021), "준정부기관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경영: 한국입업진흥원의 CSV 사례를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25(2), 53-74.
- 마희영, 김은혜(2020), "비재무적 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지속가능성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연구**, 38(3), 231-251.
- 신한금융그룹(2019) "사회책임보고서"
- 오재인(2010), "지속가능경영과 U-City,"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 331-348.
- 윤경수(2020), "해의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배경과 시사점," **KDB 산업은행 산은조사월보**, (779), 22-37.
- 이민화(2018), "기업가정신2.0," 서울: KCERN
- 이윤상(2011), "지속가능보고서와 이익조정 관련성," **회계정보연구**, 29(4), 111-132.
- 이정기, 이장우(2016), "공유가치 창출(CSV) 전략의 유형

- 화와 실천전략," *Korea Business Review*, 20(2), 59-83.
- 이주현(2017), "지속가능경영과 국내외 사례," **대한경영학회 2017년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65-175.
- 이해성, 김갑순(2015), "지속가능경영활동이 이익의 질과 조세회피 그리고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6(5), 209-242.
- 정아름, 허승준, 송기광, 김보영(2020),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의 특징 분석 및 최신 동향," *Korea Business Review*, 24(3), 24(3), 145-171.
- 한국생산성본부(2020),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결과 발표," **KPC한국생산성본부**.
- 한국표준협회(2009), "한국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이용 실태 조사보고서"
- 환경부(2005), "지속가능경영 추진 가이드라인 - 환경측면을 중심으로"

〈부록 1〉 회사별/연도별 핵심이슈 개수 현황

| 회사명 | 2010 | 2020 | 총합 |
|-------------|------|------|----|
| BGF | | 4 | 4 |
| BNK금융그룹 | | 12 | 12 |
| CJ대한통운 | | 10 | 10 |
| CJ제일제당 | | 3 | 3 |
| DB손해보험 | | 9 | 9 |
| DGB금융그룹 | | 10 | 10 |
| FRL코리아 | | 6 | 6 |
| GS칼텍스 | | 3 | 3 |
| JB금융그룹 | | 9 | 9 |
| KB국민은행 | 3 | | 3 |
| KB금융그룹 | | 14 | 14 |
| KCC | | 18 | 18 |
| KC그린홀딩스 | | 10 | 10 |
| KT | 10 | 8 | 18 |
| KT&G | | 7 | 7 |
| LG디스플레이 | | 12 | 12 |
| LG상사 | | 7 | 7 |
| LG생활건강 | 10 | 8 | 18 |
| LG이노텍 | 7 | 6 | 13 |
| LG전자 | 11 | 17 | 28 |
| LG하우시스 | | 5 | 5 |
| LG화학 | | 10 | 10 |
| LS ELECTRIC | | 9 | 9 |
| LS엠펙톤 | 6 | | 6 |
| LS전선 | | 4 | 4 |
| NH투자증권 | | 2 | 2 |
| OCI | 12 | 6 | 18 |
| SKC | | 9 | 9 |
| SK가스 | | 5 | 5 |
| SK네트웍스 | | 8 | 8 |
| SK에너지 | 6 | | 6 |
| SK이노베이션 | | 15 | 15 |
| SK주식회사 | | 7 | 7 |
| SK케미칼 | | 6 | 6 |
| SK텔레콤 | 10 | 4 | 14 |
| SK하이닉스 | 8 | 10 | 18 |

(계속)

| 회사명 | 2010 | 2020 | 총합 |
|------------------|------|------|----|
| S-OIL | 17 | 9 | 26 |
| STX건설 | 2 | | 2 |
| STX그룹 | 13 | | 13 |
| STX엔진 | 13 | | 13 |
| STX조선해양 | 5 | | 5 |
| STX중공업 | 4 | | 4 |
| STX팬오션 | 4 | | 4 |
| 강원랜드 | | 6 | 6 |
| 교보생명보험 | | 12 | 12 |
| 금호석유화학 | | 11 | 11 |
| 기아자동차 | 4 | | 4 |
| 다음(카카오) | 11 | | 11 |
| 대우건설 | | 13 | 13 |
| 대우증권 (미래에셋대우) | 10 | | 10 |
| 대한항공 | 7 | 12 | 19 |
| 동아쏘시오홀딩스 | | 4 | 4 |
| 두산인프라코어 | | 7 | 7 |
| 두산중공업 | | 10 | 10 |
| 롯데건설 | | 13 | 13 |
| 롯데쇼핑 | 17 | | 17 |
| 롯데정밀화학 | | 8 | 8 |
| 롯데케미칼 | | 13 | 13 |
| 만도 | | 15 | 15 |
| 메리츠증권 | | 10 | 10 |
| 미래에셋대우 | | 7 | 7 |
| 삼성SDI | 16 | 10 | 26 |
| 삼성SDS | | 8 | 8 |
| 삼성물산 | 11 | 10 | 21 |
| 삼성생명 | | 3 | 3 |
| 삼성엔지니어링 | | 13 | 13 |
| 삼성전기 | 10 | 3 | 13 |
| 삼성전자 | 15 | 7 | 22 |
| 삼성중공업 | | 8 | 8 |
| 삼성증권 | 8 | 4 | 12 |
| 삼성화재해상보험 | | 10 | 10 |
| 삼일회계법인 | | 5 | 5 |

(계속)

| 회사명 | 2010 | 2020 | 총합 |
|-------------|------------|------------|--------------|
| 세방 | | 10 | 10 |
| 신한금융그룹 | 6 | 8 | 14 |
| 쌍용양회 | 6 | 10 | 16 |
| 아모레퍼시픽 | 6 | 9 | 15 |
| 아세아시멘트 | | 7 | 7 |
| 연우 | | 8 | 8 |
| 우리금융그룹 | | 5 | 5 |
| 웅진케미칼(도레이) | 8 | | 8 |
| 유니베라 | 11 | 3 | 14 |
| 유한킴벌리 | 19 | 5 | 24 |
| (주)두산 | | 13 | 13 |
| 코웨이 | | 3 | 3 |
| 포스코 | 10 | 8 | 18 |
| 포스코건설 | | 12 | 12 |
| 포스코에너지 | | 7 | 7 |
| 포스코인터내셔널 | | 7 | 7 |
| 풀무원 | 16 | | 16 |
| 하나금융그룹 | | 9 | 9 |
| 한국조선해양 | | 9 | 9 |
| 한국지역난방공사 | | 10 | 10 |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 10 | 10 |
| 한국투자증권 | 10 | | 10 |
| 한미약품 | | 10 | 10 |
| 한샘 | | 10 | 10 |
| 한솔홀딩스 | | 11 | 11 |
| 한화케미칼(솔루션) | 11 | | 11 |
| 한화투자증권 | | 12 | 12 |
| 현대건설 | 17 | 9 | 26 |
| 현대건설기계 | | 8 | 8 |
| 현대글로벌비스 | | 9 | 9 |
| 현대위아 | | 5 | 5 |
| 현대일렉트릭 | | 8 | 8 |
| 현대자동차 | 5 | 6 | 11 |
| 현대제철 | 9 | 5 | 14 |
| 현대트랜시스 | | 5 | 5 |
| 현대해상화재보험 | 18 | | 18 |
| 총합계 | 402 | 755 | 1,157 |

Sustainability Issues and Their Changes in the Last 10 Years from Materiality Analysis in Sustainability Reports

Yun Hyeong Choi* · Ki Ho Lee** · Sang Myung Lee***

Abstract

Previous studies on firm sustainability offer little insight into how firms and their stakeholders engage in sustainable managemen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firms respond to all stakeholders' demands and address their sustainability issues from materiality analysis in sustainability reports in 2010 and 2020. We find that 1,157 key issues can be divided into 14 issues, which are composed of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governance parts. Also, this study indicates that firms who engage in ESG management make efforts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ir stakeholders and to deal effectively with sustainability issues. Thus, we expect that firms who are still concerned about sustainable management are urged to regard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management and its reporting.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firm sustainability and its reports. We present the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for an empirical study on sustainability issues.

Key Words: ESG,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Report, Material Issue

* M.S. School of Business,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First Author

** Integrated Ph.D program Student, School of Business,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Co-Autho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